

우크라 “탱크 빨리 줘”…러 “서방, 노골적 도발 말라”

미·독 주력전차 지원 결정 앞두고 젤렌스키, 빠른 결단·실행 촉구 전쟁 국면 바꿀 중무기 관측

미국과 독일이 주력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내줄 것으로 알려지자 장기 소모전을 지속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함께 몸이 달았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야간 영상연설에서 서방의 탱크 지원 계획에 빠른 결단과 실행을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논의는 반드시 결정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이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우리 국방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동맹국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수량의 탱크를 보유한다”며 “질실한 중대 결단이 이뤄지면 우리는 각각의 중대 결단에 기쁘게 감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온 서방국들은 최근 들어 주력 탱크를 보내는 방안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탱크 지원에 소극적이던 미국, 독일도 각각 자국이 보유한 현대식 탱크인 M1 에이브람스, 레오파드 2를 지원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은 유럽 각국에 수출한 레오파드 탱크의 재수출을 승인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다른 동맹국의 지원길도 열어줄 방침이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주력 탱크를 받아 실전에 배치하면 지난해 2월 24일 시작된 전쟁이 다시 새

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간 우크라이나군은 도심에서 버티며 동부에서 밀고 들어오는 러시아군을 막는 데 주력해왔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병력이 탱크로 무장하면 동부에서 러시아군 방어선을 뚫고 영토 탈환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겨우내 전열을 재편한 러시아군이 올해 상반기에 대한방격을 준비한다는 서방 군사정보 당국의 경고에 맞춰 방어력을 높이는 데에도 힘이 붙을 전망이다. 그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첨단무기 지원이 러시아를 파괴하려는 행위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운운하는 등 주력전차 지원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의 주력전차 지원 추진안을 노골적인 도발로 규정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안토노프 대사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미국이 러시아에 전략적인 패배를 가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탱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다면 ‘수비적 무기’에 대한 주장으로 그런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를 겨냥한 또 한 번의 노골적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를 방어용으로 국한하고 중무기나 러시아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장거리 무기의 지원을 자제해왔다. 주력 전차와 같은 중무기도 최근까지 그런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관측돼왔다. 이는 핵보유국인 러시아를 자극해 전쟁이 서방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려 때문에 전쟁 이후 견지된 방침이었다. /연합뉴스

2300년된 이집트 소년 미라 CT 찍어보니 은 몸에 부적 49개 드러나

2300년 전 사망한 이집트 소년의 미라를 컴퓨터 단층촬영(CT)으로 분석 결과 황금 등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수십 개의 부적이 발견됐고 25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 ‘황금 소년’ 미라는 기원전 332년에서 기원전 30년 사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동묘지나 그 엘-하사이에서 1916년 처음 발굴됐다. 하지만 이후 오랜 기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박물관 지하에 보관됐다. 내부를 살펴볼까 미라를 열어헤치는 것 자체로 시신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최근 미라에 접촉하지 않고도 내부를 살펴볼 수 있는 CT 스캔 방식이 도입되며 ‘황금 소년’의 모습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CT 촬영 결과 이 황금 미라는 총 2개의 관으로 감싸인 형태로, 안쪽 나무관에는 금박을 입힌 얼굴 무늬가 새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소년의 나이는 사망 당시 14~15세, 키는 128cm 정도로 추정됐다. 작은 코와 좁은 턱, 계란형 얼굴을 가진 아이였다. 특히 CT 사진에서는 소년의 입과 가슴 등에서 총 21가지 모양을 가진 다양한 부적 49개가 발견됐다. 대부분 금으로 만들어졌고, 준보석이나 구운 점토, 도자기 등이 쓰인 부적도 있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로 가려면 위험한 지하세계를 통과해야 한다고 믿었고, 부적을 통해 그 여정을 떠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연합뉴스

입국 방역 규제 해제한 태국 외국관광객 대상 전국에 코로나 백신 접종소

입국 방역 규제를 사실상 전면 해제한 태국이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접종 서비스를 확대한다. 25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전국 각 주에 외국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시설을 1곳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태국이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부라고 보건부는 설명했다. 각 외국인 접종소에는 정부가 조달한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된다. 중국인들도 자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기존 백신과 달리 신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생성 방법을 세포에 학습시키는 방식의 활성화 백신이다. 중국은 미국 등이 개발한 mRNA 백신을 허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효능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시노백과 시노팜 백신만 접종해왔다. 이에 여행 제한 조치 해제 이후 mRNA 백신 접종을 위해 중국 본토에서 홍콩이나 마카오로 가는 여행객이 몰리기도 했다. 태국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방콕, 파타야, 푸켓, 치앙마이 등 주요 관광도시에서 외국인 여행객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소를 시범 운영 중이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가격은 각각 800밧(3만 원), 1천밧(3만8000원)이며, 접종 서비스 비용 380밧(1만4000원)이 추가된다. 화이자 백신 접종 비용은 약 5만2000원인 셈이다. 단기 여행객이 아닌 장기 체류 외국인 거주자는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방콕 등 각지에 외국인인을 위한 코로나19 접종소를 늘릴 예정이며, 내국인과 외국인 접종에 필요한 백신 재고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소도시인 몬테레이 파크 시청 앞에서 시민들이 이틀 전 발생한 총격사건 희생자들을 기리며 촛불을 켜고 있다. 이날 추모행사는 수백명이 참가했다. 음력설 전날인 지난 21일 몬테레이 파크의 한 댄스 교습소에서 아시아계 72살 노인이 무차별 총격을 피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꼬리문 총기난사 비극에 美 총기규제 공방 재가열

민주당 ‘대량살상 흉물’ 규제 추진 공화당 반대에 실질적 진전 불능

미국에서 연초부터 총기난사 참변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규제강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잇따른 비극에 이번에도 집권당인 민주당이 먼저 집단적으로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그러나 총기규제에 대한 여야의 극단적 이견 때문에 이번에도 주목할 진전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카벌

라 해리스 부통령을 캘리포니아로 급파하며 총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이앤 페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 발의한 돌격소총 금지 복안을 언급하며 “빨리 서명하도록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돌격소총은 많은 총탄을 빨리 발사할 수 있는 반자동 소총으로 대용량 탄창과 함께 대형 총기난사 사건에 단골로 등장하는 흉물이다. 미국은 전쟁터에서나 쓸 법한 이 무기를 민간용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을 1993년 제정해 1994년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이 법은 총기업계의 끈질긴 로비와 보수 진영의 지속적 반대 속에 일몰 규정에 따라 2004

년 폐지됐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뉴욕) 의원은 “총기가 너무 많아 비극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게 확실하다”며 “총기 안전을 위한 입법이 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보수진영의 견해를 대변하는 공화당은 이번에도 애써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자유주의 성향을 지닌 미국 보수진영은 수정헌법 2조 등을 들어 개인의 총기 보유가 타협하지 못할 헌법적 권리라고 주장한다. /연합뉴스

힉킨스 뉴질랜드 총리 취임 “고물가 문제가 최우선 과제”

크리스 힉킨스(45) 뉴질랜드 41대 총리가 25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했다. 현지 매체 스타프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왕이기도 한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리인 신디 키로 총독은 이날 웰링턴에 있는 총독 관저에서 힉킨스를 총리에 임명한다는 문서에 서명했다. 서명을 마친 키로 총독은 “이것으로 총리 임명 효력이 발효됐다”라며 “힉킨스 총리, 축하한다”라고 말했다. 힉킨스 총리는 “이는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자 책임”이라며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힘을 얻고 흥분된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기자들 앞에서 “이제는 꽤 현실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힉킨스 총리는 이날 오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총리로서 첫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고물가 문제가 정부가 마주한 최우선 과제라며 내각의 중심 정책 의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질랜드 국민들은 앞으로 몇 주~몇 달 안에 생활비가 우리 노동 프로그램의 핵심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며 다만 정책을 너무 즉각적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